

시론

철없는, 철지난 반미 시위를 보는 우려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주변을 지나다 보면 조금은 생뚱맞은 장면을 보곤 한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머물고 있는 곳을 한국 경찰 몇몇이 한가로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란... 그런데 최근 이런 어색한 풍경이 왜 연출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10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미 해군 창설 242주년 기념행사장에서 반미단체가 난입해 미 장병들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했다. 이들은 김정은이 썼던 'DOTARD(노망 난 늙은이)'라는 단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서울 중심지와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반미 시위가 이어졌고 반미단체들은 11월 7~8일 국빈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조직적인 '반미·반트럼프' 시위를 펼쳤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의사표시는 자유로워야 한다지만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 북한이 미국을 비난할 때 썼던 단어나 구호들을 버젓이 외칠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모형을 불태우는 등 저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어느 때문이다? 북한은 전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둔 핵미사일은 물론 미국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완성했다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전쟁에 간섭하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해소를 위해 한미동맹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기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철없는, 그리고 철지난 행동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김정은정권의 야욕에 부합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이며, 국익을 저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반미집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문제에서 손을 떼자"는 반한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도를 넘은 감정적 반미물의를 하는 '철없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대학생 지식봉사활동 평가대회 개최

지역별 사례 발표 등 다채로운 재능기부 방안 강구

연맹은 11월 4~5일 충북 충주시 소재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전국 대학생 지식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대학생 지식봉사활동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지식봉사 활동은 전국 17개 시·도지부별로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북한이탈주민·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 100~3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여 명의 대학생 멘토(봉사자들이 학습 지원, 인성 및 봉사 정신 함양, 특별 활동 등 다양한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평가대회에서는 지역별



활동 현황 점검, 우수사례 발표·공유, 우수 활동지부 포상,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경재 총재는 대회 인사말을 통해 "지식봉사 활동 대학생 봉

사가 사회 어두운 곳을 비추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연맹은 앞으로도 미래세대 인재 육성과 생활 속 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 본부, 중앙자유산악회 발족

연맹 본부는 11월 10일 경기 남한산성에서 본부 임직원 '자유산악회' (회장 이영석 이사) 발대식을 갖고 첫 산행을 했다.

김영신 호주지부 회장 임명장 수여

연맹은 11월 3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김영신 신임 호주지부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무처장단 해외 연수

연맹 전국 17개 시·도지부 사무처장단은 11월 8~11일 캄보디아를 방문,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사무처장단은 방문기간

중 캄보디아지부(회장 이상일)를 격려 방문하고, 유치원과 학교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11월~12월 지방조직 주요 활동계획(11.16~12.15)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서울	새터민과 함께 김장 나누기(금천구)	11.22	독산1동 주민센터	30명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서대문구)	11.26	충현동 주민센터	15명
	저탄소녹색성장지킴이 캠페인(강북구)	11.28	강북구청 사거리	40명
부산	독도 골든벨 퀴즈대회(시지부)	11.22	달북초교	350명
	목욕봉사(기장군)	11.26	선양시니어빌리지	20명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남구)	11.25	문현초교	10명
대구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남구)	11.17	낙동강승전기념관	40명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시지부)	11.20	"	577명
인천	효도사진 무료촬영(동구)	11.24	동구청 강당	60명
광주	6대 국민운동 실천 캠페인(동구)	11.18	계림동 홈플러스	20명
대전	환경정화 캠페인(시지부)	11.20	중촌동	10명
울산	안보현장 견학(남구)	11.30	거제포로수용소공원	90명
세종	안보정세설명회(시지부)	11.24	자유회관 강당	100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자유산악회 산행(화성시)	11.22	무봉산	40명
	자유수호 전진대회(파주시)	11.30	문산 행복센터	200명
강원	동네행복지킴이 활동(횡성군)	11.21	영랑리, 조항리	20명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원주시)	11.29	문막고교	100명
충북	산불예방 캠페인(청주시)	11.19	산성산	30명
	자유수호 결의대회(단양군)	11.22	단양평생학습센터	300명
충남	지방경찰청장 초청 강연회(도지부)	11.16	충남통일관	150명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천안시)	11.22	KT&G 인쇄창	20명
전북	안보현장 견학(도지부)	11.28	서대문형무소	45명
전남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화순군)	11.21	남산 충훈탑	200명
경북	무료급식 봉사(청송군)	11.22	월막리 경로당	20명
경남	자장면 나누기 봉사(남해군)	11.25	남해소망교회	30명
제주	사랑의 점심나누기(제주시)	11.24	아라복지회관	15명